

# 상상하는 역사의 양날 - 역사드라마의 허구, 그 경계선은?



글. 양동복  
나시렛대학교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적 실존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50편이 넘었다. 연간 약 4편이 방송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드라마는 제작비가 더 많이 들고 제작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닌데도 지속해서 제작돼온 이유는 우선 시청률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드라마를 통틀어 역대 평균 시청률 20위 안에는 <허준>, <대장금>, <주몽>, <태조 왕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순간 최고시청률 40%를 넘게 기록한 역사드라마는 이 네 작품 외에도 <여인천하>, <용의 눈물>, <왕과 비>, <선덕여왕>, <장희빈> 등 상당히 많다.

역사드라마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드라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상상 속에

서나 존재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는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그려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방송의 특성상 드라마는 삶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일부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데다가, 또 시청자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갈등구조를 만들려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과장하게 된다. 실제 삶에서는 별다른 감흥 없이 지나칠 것 같은 내용도 드라마 안에서는 말 그대로 '극적(dramatic)'으로 표현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인물에 대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다고도 말한다. 즉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가 바로 드라마인데, 더 진짜 같은 현실의

소재는 바로 실제 일어났던 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실화는 드라마의 좋은 소재가 되는데, 역사야말로 그 실화 중의 실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드라마의 가장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은 대부분 극적인 삶을 산 경우가 많다. 그랬기 때문에 기록에 남을 수 있었다. 특히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대로 거슬러 갈수록 이름이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더 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록에 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엔 보통 허구가 가미되어 남겨진다. 예를 들어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당수가 신화의 형태로 전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런 점에 비춰볼 때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극적 효과를 기본적으로 안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청률이 높은 이 역사드라마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드라마의 여러 가지 장치, 즉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허구의 인물과 같등하거나 기록에 없던 사실을 행하게 되는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장치가 좁게는 관련 가족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넓게는 역사적 가치관을 흐트러 시청자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기황후> 역시, 높은 시청률만큼 논란이 많다.

<기황후>는 2013년 가을에 시작된 드라마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고 방

### 2000년 이후 실존 역사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드라마

시대	드라마
삼국시대까지	주몽(2006), 태왕사신기(2007), 바람의 나라(2008), 왕녀 자명고(2009), 김수로(2010), 근초고왕(2010), 광개토태왕(2011)
통일신라 후삼국	해신(2004), 서동요(2005), 연개소문(2006), 대조영(2006), 선덕여왕(2009), 계백(2011), 대왕의 꿈(2012), 제왕의 딸 수백향(2013), 칼과 꽃(2013)
고려	태조 왕건(2000), 제국의 아침(2002), 무인시대(2003), 신문(2005), 천추태후(2009), 무신(2012), 대풍수(2012), 기황후(2013), 정도전(2014)
조선	천둥소리(2000), 소설 목민심서(2000), 여인천하(2001), 흥국영(2001), 상도(2001), 명성황후(2001), 장희빈(2002), 어사 박문수(2002), 태양인 이제마(2002), 대장금(2003), 왕의 여자(2003), 불멸의 이순신(2004), 황진이(2006), 왕과 나(2007), 이산(2007), 한성별곡-정(2007), 정조암살 미스터리(2007), 대왕 세종(2008), 동이(2010), 거상 김만덕(2010), 뿌리 깊은 나무(2011), 공주의 남자(2011), 인수대비(2011), 천명(2013), 구암 허준(2013),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2013),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MBC에서 방영중인 역사드라마 <기황후> 포스터  
(출처 : MBC 기황후 공식홈페이지[www.imbc.com/broad/tv/drama/empress/])

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논란은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된 인물이 드라마에서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그려진다는 데에서 촉발되고 있다. 주인공인 기황후는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고려시대의 인물이다. 역사에서는 기황후가 원나라 혜종의 황비가 된 이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공민왕 폐위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려정벌을 명하게 하는 등 고려에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함께 등장하는 충혜왕도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는 제작진이 기황후를 “낮선 이국의 황실에서 고려의 자긍심을 지키며 운명적인 사랑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여인”으로, 충혜왕을 “원나라에 맞서는 기개 넘치고 영민한 고려

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학계, 언론, 네티즌의 역사 왜곡 문제가 크게 확산되었다. 제작진은 충혜왕을 가공의 인물인 왕유로 바꿨다. 또 실제 방송이 시작될 때 “이 드라마가 고려말,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으며, 일부 가상의 인물과 허구의 사건을 다루어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는 것을 자막으로 밝혀 소재만 역사적 사실에서 따왔을 뿐 허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임을 강조하였다. 드라마를 집필하고 있는 작가들도 “기황후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70%가 허구의 인물이다. 그리고 기황후라는 역사적 인물의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흑역사도 후반부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황후> 이전에도 역사드라마의 역사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선덕여왕>, <공주의 남자>, <근초고왕>, <광개토태왕>, <무사 백동수>, <계백> 등도 역사 왜곡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드라마는 역사를 그대로 재연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처음부터 허구를 표방하고 있고, 극의 구성과 흥미를 위해 허구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또 이런 창작은 표



타이페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기황후의 초상 (출처: 경향신문, 「MBC 새월화극 '기황후' 왜곡 논란, 역사학자들도 "잘못"」, 2013년 8월 29일자)

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왜곡 시비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창작예술이 지닌 표현의 자유를 만족시킬 수 있는 허구의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져야 하는가?

### 역사드라마와 허구적 표현의 자유

역사드라마는 서술방식에 따라 정사(正史)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부터 야사(野史)나 민중사를 토대로 한 상상이나 허구적 서술로 나누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에 충실한 정통 드라마와 허구와 상상력이 극대화된 이른바 퓨전사극, 팩션사극, 판타지 사극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것이 정통사극이든 팩션사극이

든, 실존인물이 등장한다면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적을 사실과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보통 그 역사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공공담론의 영역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규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다. 공공담론의 영역에서는 드라마 내용이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든가, 또는 기존의 역사적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온다고든가 하는 점들을 주로 다룬다. 법적 영역에서는 주로 실존인물과 연관된 사람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해져 해당 인물에 대해 시청자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나타난다.

드라마의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킨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길 만큼 혼동을 준다면 논란이 확산되고 때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도 TV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조다-악바르>는 무굴제국 왕가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인도 북부의 라자스탄 지역 라지푸트인들의 이미지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민족이 크게 항의하고 있다. 2013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아르고>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미국대사관에 잡혀있던 인질을 구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란 정부는 이 영화가 이란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멜 깁슨이 제작한 <아포칼립토>는 한때 중앙아메리카에서 흥성했던 마야제국이 배경인데 실제 역사를 다

른 영화가 아니었음에도 마야인들을 흉악한 민족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미국 내 아메리카 원주민, 멕시코, 과테말라, 고대 마야문명 연구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역사드라마가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대체로 역사적 인물 당사자 또는 후손들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여길 때 일어난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의한 표현과 예술의 자유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개인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인격권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할 때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인격권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게 된다.



마야제국 배경의 영화 아포칼립토(APOCALYPTO) 포스터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역사드라마는 보통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진행된 시기를 다루게 되므로 그 주인공이 사망한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드라마의 실존인물이 생존해있거나 사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역사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명예훼손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역사드라마의 허구가 실존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언론보도에 적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역사드라마나 영화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는 기본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 일반 드라마에 대하여 가능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정한 기준이 일용 적용된다.”(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981)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역사드라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먼저, 공익성은 드라마가 국민의 관심사인 역사의 인물을 다루고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나 관점을 담아내고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회적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게 된다. 진실성과 상당성은 제작 당사자가 진실확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느냐와 확보가능성으로 판단된다. 관련 당사자를 만나거나 당시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조사하여 기록되지 않은 역사 부분을 개연성 있게 구축했느냐가 고려되어야 한다.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한다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은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된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그 진위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참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사망한 역사의 인물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행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물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에서 백범의 암살 배후로 묘사된 김창룡의 유족이 청구한 소송과 <서울 1945>에서 이승만과 장택상의 유족이 드라마가 이승만, 장택상을 여운형의 암살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존인물이 생존해 있거나 논픽션 성격을 지닌 드라마는 이보다 엄격한 진실성과 상당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즉 드라마는 신속성이 일반보도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사실에 대한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와 박정희, 김형욱 등의 정치적 관계를 비하하여 묘사했다고 주장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고 사실 확인이 용이함에도 이들을 다룬 허구적 드라마가 큰 논란 없이 방송된 경우도 있다. 영국의 전·현직 총리의 정치적 거래를 다룬 영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The Deal>은 전·현직 총리 양 당사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묘사했다. 여기에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수직 거래내용뿐만 아니라 블레어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등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는 묘사가 담겨져 있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역사적 개연성에 따른 허구적 묘사가 더 크게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청자가 드라마의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의 여부가 적용된다. 드라마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될 때 묘사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이를 말해준다. 근현대사를 다룬 드라마 소송의 판결에는 대부분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그때 그 사람> 소송에서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할 때 관객들이 영화 속의 인물과 실제 인물을 동일시하게 되고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할 경우가 많으

로 영화가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는 자막을 삽입했음에도 실제 사건과 픽션이라는 두 명제에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실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삽입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시하였다. <실미도> 소송에서는 영화에 부가하여 상영되는 자막에 각색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 관객이 영화와 실제 상황을 혼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았다.

셋째, 드라마의 특성이 적용된다. 즉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드라마 자체의 내적 규칙과 패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현될 경우 실존인물의 허구적 표현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드라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드라마의 전개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거나 창작물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허구적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대본과 연출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논픽션 드라마일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줄거리의 구성에 있어 작가나 연출자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드라마의 현실감이나 시청자들에 대한 흥미와 감동을 위하여 작가나 연출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면이 부가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드라마는 그 전개상 갈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갈등은



영국 드라마 <The Deal> 포스터(출처 : Illiotgould, 「The deal with The Deal」, 2008년 7월 28일자)

주로 등장인물과 그 대립적인 인물 간의 성격과 대사를 통해 묘사된다. 따라서 허구적인 묘사는 등장인물들의 의사나 행동과 심히 대립되는 대사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허구적인 대사나 행동이 드라마에서 인물의 성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전체 플롯을 전개해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야인시대>에서 임회수가 폭력조직을 결성, 정치권과 결탁하고, 배우를 폭행하는 등 인격을 심하게 비하하는 묘사를 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도 이런 점이 인정되어 원고패소 결정이 난 바 있다.

###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 - 상상의 역사도 신뢰와 윤리가 고려되어야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드라마의 역사 왜곡 문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격권 침해 소송과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그 경계선을 짐작할 수 있다. 허구적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따른 개연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드라마적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언이나 자료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에 설정된 것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의 여부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문제는 사회공동체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기황후>처럼, 근현대사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를 다룬 드라마의 역사 왜곡 문제에

서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침해와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의 평가영역으로 넘어간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드라마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유족의 인격권 보다는 역사의 평가가 더 중요하며, 특히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고 그 기록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창작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럿 있다. 우암 송시열 후손들이 <TV 조선왕조실록>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숙주의 후손들은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의 모습이 부정적



KBS 2TV에서 방영된 <공주의 남자> 포스터(출처 : KBS 공주의 남자 공식홈페이지[<http://www.kbs.co.kr/drama/princess/>])

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김수로왕이 시조인 김해 김씨와 허 왕후의 후손 등의 모임인 가락중앙총친회는 <김수로>가 김수로왕의 출생과 성장 과정, 허 왕후의 출현 배경 등을 왜곡했다며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라마 방영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드라마에서 갈등구조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상의 언행을 통해 후손 개개인이 직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다. 사실 이런 소송은 전략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법적 분쟁보다는 시청자 불만처리나 여론형성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순천 김씨 총친회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김중서 장군이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묘사됐다고 주장하면서 <왕과 비>에서는 충신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반영되었다.

오래된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허구의 역사가 시청자들에게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고 등장인물과 관련된 인격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다수 시청자의 정서에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조화를 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겠다.

첫째, 느슨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방송은 교육적 기능, 여론 형성의 기능 등 공익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상상하는 역사라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드라마는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역사드라마가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역사인식은 필요한 것이다. 진실성, 상당성은 적어도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지켜질 수 있다. 만약 드라마가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허구적 내용이 압도적이라면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등장인물이나 여타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드라마의 허구는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드라마 작가는 역사적 사실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허구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전체적인 플롯에 맞아야 외적 개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상은 자유이나 거기에는 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내적 개연성은 드라마가 지니는 표현양식을 충실히 지키면서 인물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드라마에서는 역사적 개연성의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 모두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이나 갈등의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외적 개연성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형성되는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필연적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내적 개연성은 등장인물들이 플롯을 이끌어나가는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적 개연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내적 개연성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드라마의 허구는 역사적 맥락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짜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황후>는 외적 개연성에 충실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허구성이 높은 역사드라마의 장르를 표방하고 등장인물을 바꾸었다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표현양식에서 자유로운 요즘의 역사드라마에 이 두 가지 점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역사인식이나 역사교육 문제의 탓을 역사드라마에 떠넘기고 있다는 억울함도 있다. 역사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때마다 왜곡 시비가 일어나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실상의 검열 역할을 하여 상상력 풍부한 역사드라마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근현대사 드라마가 계속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다 보니 <서울 1945> 이후에는 실명인물이 등장하는 현대 역사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역사드라마는 시청

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역사의 한 부분을 상상으로 재구성해주는 것이고 시청자들은 그 상상하는 역사에서도 신뢰를 형성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상상력도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8·15 광복 전후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서울 1945>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홈페이지[[movie.naver.com]])